

2021년 3월 시앰립 선교 편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조국과 고향에 계신 선교 동역자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2020년 한해 뿐 아니라 2021년에도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교회와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도 많은 제한사항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재난과 같은 시기를 주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감추어진 은혜와 배려를 발견해 가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은 선교사역에 있어서 큰 전환기를 맞는 시간입니다. 작년 4월과 5월에 전임선교사이신 이명수 목사님과 행정적인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난 뒤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한 해입니다. 그로인해 선교 사역의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교회의 표어와 목회계획을 스스로 정하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시앰립한인장로교회의 표어는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엡4:3, 요17:21)이며 예배와 교육, 교제, 선교, 봉사에 있어 새로운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힘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월에는 신년성경통독회(1.1)와 연합신년새벽기도회(1.4-9, 시앰립참빛교회)를 실시하였고 수요일마다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주일낮예배 시간을 통해 교회에 출석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설교와 간증, <찾아가는 삶의 예배>의 일환으로 선교사역지를 방문하고 그곳을 축복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나 기업에는 찾아가서 심방예배를 드리고 1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간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사역에 있어서는 아동부예배에 고학년들을 분리하여 중고등부예배를 새롭게 신설하고 각 학년에 맞는 예배를 통해 교회학교의 부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1년 1월 29일은 저희 가정이 이 곳 시앰립에 입국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총회파송선교사의 규정상 초임2년은 수습선교사이고 이후에는 정규선교사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로인해 선임선교사님들과 소속선교회의 평가를 받고 정규전환의 과정을 잘 진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양코르대학 강의와 한글학교 어린이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준공감사예배나 예장통합 교단선교사모임을 본 교회에서 개최하고 섬김의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시앰립한인선교사회의 정기모임과 PCK한뜻선교회의 온라인정기모임 등도 잘 참여하며 지역선교사들과 교제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난 2.20경에 시작된 집단지역감염의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3.17종교집회금지령과 3.20전국휴교령이 작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사역은 대체로 멈추어진 상황이고 대면예배는 비대면예배로, 직접 마을이나 가정으로 심방하는 사역정도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고 교회에도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가정의 자녀들도 다니는 학교가 휴교를 한 상황이고, 셋째가 얼마 전부터 다니는 유치원도 휴교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매년 예정된 막내 하민이의 심장건강검진을 이 시기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하반기에 예정했던 한국방문을 4월-6월 사이에 아내선교사와 아이들만 다녀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의 변화가 적응하기 힘들지만,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도 주 안에 평안하십시오. 샬롬!

2021.3.31.(수)

인도차이나 소망의 땅 캄보디아에서,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임창무 정윤영 하은 하람 하민 선교사가족 올림

<선교 기도제목>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16)

1. 순종의 훈련(묵상, 성경통독)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선교사역 되기를
2. 선교3년차로서 정규선교사 전환을 잘 마치고, 부부와 자녀들(하은, 하람, 하민)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언어의 진보를 주소서
3. 후원교회(안동교회 외)와 시엠립한인장로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지역복음화와 세계선교, 다음세대 지도자 양육을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 되도록
4. 어린이 교육사역 및 돌봄사역의 방향과 구체적인 준비되도록.. 특별히 지역아동센터, MK스쿨, 다문화가정예배 등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것(동역자, 재정)이 준비되도록
5. 자녀들의 모국어 교육과 현지유치원, 초등학교 적응과 배움이 잘 되어 가도록
6. 토지주인과의 원만한 관계와 재계약문제, 현지인어린이예배 지속문제가 잘 해결 되도록
7. 동역자들을 보내주소서. 단기선교사와 견습선교사, 교사, 현지인전담사역자 등

<교회소개>

현재 섬기고 있는 **시엠립한인장로교회**는 캄보디아 시엠립 시내에 소재한 한인장로교회로서 지역복음화, 세계선교, 다음세대지도자양육을 주된 목표로 하여 한국교민들과 선교사네트워크를 통해 캄보디아 2세대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 표 어 :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엡 4:3, 요17:21)
- 목 표 : 1. 은혜가 충만한 예배 2. 진리로 배우는 교육 3. 사랑이 넘치는 교제
4. 순종으로 행하는 선교 5. 기쁨으로 섬기는 봉사

<현재 및 향후사역>

- 1) 한인예배 2) 현지인어린이예배 3) 지역아동센터(공부방) 4) 한글교육 5) 성경통독
- 6) NGO사역 7) 신학선교세미나 8) 어린이도서관 9) 다문화예배 및 모자시설

<연락처>

- 1) 한국: 이청걸 010-5141-0816
- 2) e-mail&SNS: lcm4247@hanmail.net / 카톡ID lcm4247 (임창무)
카톡채널 https://pf.kakao.com/_pxawtj (시엠립한인장로교회)
- 3) 전화번호: (한국) 070-7574-3240 / (855) 087-751-024. (855) 077-709-430
- 4) 주소: No. 212 Sala Kanseng Village, Svay dangkum Commune, Siem Reap, Cambodia
- 5) 우체국사서함: P.O.Box 93149 Siem Reap Angkor Cambodia

*카카오톡 채널로 선교편지와 선교지소식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에서 '**시엠립한인장로교회**'를 친구로 추가해 주세요.

예) 카카오톡>검색>'시엠립한인장로교회' 검색>채널추가>소식받기 설정

